

장흥, 2018 통합의학박람회 닷 올린다

다음달 8일부터 개최... 120여개 기관 참여 힐링 치유 등 관람객 체험 프로그램 마련

장흥군(군수 정종순)은 다음달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장흥군 안양면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에서 2018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장흥군은 지난 2002년 자생 약초 250여종을 토대로 2006년 생약초 한방특구로 지정되면서 통합의학산업에 뛰어 들었다.

2010년부터 통합의학박람회를 개최해 통합의학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또한 2016년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개최와 2017년 통합의학적 진료 및 연구, 교육을 시행하는 양·한방 협진 국가시범의료기관인 원광대학교장흥통합의료한방병원을 개원으로 명실상부 통합의학의 대표 지역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2018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는 120여개 기관이 참여해 의학, 한의학, 대체보완의학, 힐링 치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관람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10월 13일은 국내 저명한 교수들로 구성된 한국전립선관리협회 의료진을 초빙해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전립

선 건강 강좌와 무료 검진을 시행한다. 10월 14일은 통합의학 학술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국제학술행사는 사단법인 대한통합암학회와 공동으로 10월 14일 한양대학교에서 개최되고, 국내학술행사는 대한통합암학회와 공동으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장흥군은 2018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를 통해 현 정부의 국정 100대 과제인 장흥·화순·나주 생물의약산업벨트 사업 국비 확보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장흥=김정근 기자 kimjg@



담양군이 최근 지역단위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다. /담양군 제공

담양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기관별 공적자 표창서바이벌 훈련 체험

담양군이 지역 단위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유사시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17일 군에 따르면 수북면 예비군 훈련장에서 16명의 통합방위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2018년 3분기 담양군통합방위협의회(의장 최형식)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각 기관별 공적자 표창 및

통합방위협의회 발전방안 토의, 서바이벌 현장 견학 및 체험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조용익 담양 부군수는 "한반도를 둘러싼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민·관·군·경이 지속적으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담양=강종연 기자 jbest1@

장성 "재산세 납부 잊지 마세요"

납부기간 다음달 1일까지

장성군이 주택(2기분) 및 토지분 재산세 4만1천539건, 총30억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3억 7천만원 증액된 것으로, 군내 각종 개발행위 증가, 상가 등 건축물 신축 증가, 기업 유치 등이 주요 증가요인이라고 군은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2018년 6월 1일 현재 주택(부속토지 포함)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류세로,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는 재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키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합평군 해보면에서 열린 '제19회 꽃무릇큰잔치'가 지난 16일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합평군 제공

합평 해보면 '꽃무릇큰잔치' 성황리 마무리

농특산물 판매장·먹거리장터 등 관람객 인기몰이

합평군 해보면에서 열린 제19회 꽃무릇큰잔치가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지난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세계 최대의 꽃무릇 군락지로 손꼽히는 합평군 해보면 용천사 인근에서 개최된 이번 축제는 해보면꽃무릇큰잔치추진위원회(위원장 박지열) 주관 하에 제27회 해보면민의 날과 함께 개최됐다. 행사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되는 퓨전타악공연을 시작으로 11시 공식 개막선언과 함께 막을 올렸다. 개막식 후엔 잔디광장에서 펼쳐지는 민

민화합 한마당과 평양예술단 공연, 마술 공연이 펼쳐져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흥미롭게 지켜봤다. 오후엔 해보면민이 참여하는 마을별 노래자랑과 치어리더 공연, 현진우, 한소아 등 유명가수의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축제 이틀째인 16일엔 관광객과 함께하는 다들타·풍물패 공연과 DJ&비보이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됐다. 오후엔 CMB 주관으로 꽃무릇가요제 방송녹화가 진행됐으며 김용임, 김정연 등 초대가수의 특별공연도 진행됐다.

이밖에도 천연삼파(비누) 만들기, 천연염색 체험 등 체험행사와 함께 합평 농·특산물 판매장, 먹거리장터도 운영하며 관광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나만중 해보면장은 "꽃무릇은 가을 대표 꽃으로, 10월 초까지 그 붉은 자태를 유지한다"며 "축제는 막을 내렸지만 꽃무릇은 아직 지지않은 만큼, 가을 내내 용천사 인근을 찾아주셔서 가족, 연인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용천사 인근 꽃무릇 공원은 국내 3대 꽃무릇 군락지 중 한곳으로, 용천사 들머리부터 마치 붉은 용단을 펼쳐놓은 듯 장관을 이루고 있다. /합평=윤규진 기자 jin2001@

합평, 군수공약 점검 주민배심원제 시행

합평군(군수 이운행)은 17일 주민배심원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민선7기 군수공약 점검 주민배심원제를 첫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선 7기에 최초로 도입된 공약점검 주민배심원제는 군수 공약사항 점검 및 평가를 추진함에 있어 소수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개선하고, 지역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서 체감하고 있는 주민들의 직접 참여와 심의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1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열어 민선7기 동안 추진될 공약사업 시행계획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그 의견을 반영해 공약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할 계획이다. 이들은 다음달 16일까지 3차례 회의를 거쳐 분임별(5개) 토론과 현장 활동 등을 통해 공약 시행계획을 점검하고 합평군에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합평=윤규진 기자 jin2001@

화순, 제11회 '치매극복의 날' 캠페인 전개

화순군(군수 구충근)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최근 제11회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극복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화순고인들 전통시장 일원에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치매극복의 날(매년 9.21일)은 1995년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알츠하이머 병협회(ADI)가 가족과 사회의 치매환자 돌봄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자 전 세계적으로 지정한 날이다. 올해의 슬로건인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는 치매극복 공감대를 형성해 가족과 사회의 치매환자 돌봄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주민에게 치매조기검진의 중요성, 치매예방수칙 3권(즐길 것)·3금(참을 것)·3행(행길 것) 등을 홍보하고 치매관련 책자 및 홍보물을 배부했다. /화순=남호경 기자 hknam@

보복운전, 도로위의 폭력행위입니다

정말 좋은 물건도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한다면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소한 이유로 상대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보복운전은 자칫 대형사고와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른 운전자 입장에서도 한번쯤 생각해보고 적극적으로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현한다면 보복운전은 서로를 지키는 배려운전으로 승화 될 것입니다.

전남도민일보 한국언론진흥재단